

2020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수기 공모전

기독교적 인성 역량 우수상

박○주(동아시아물류학부)

안다미로 봉사단

내 용

1.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작년 해외봉사를 다녀온 이후로 봉사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졸업 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학교 봉사단인 안다미로 봉사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의 2번씩 봉사활동의 기회를 가지면서 좋은 시간과 경험을 가질 수 있었고, 특히 7월에 있었던 연합대학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의 경우 타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농촌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 좋은 시간일 것 같아 봉사단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과정 등 참여 경험 소개

안다미로 봉사단에서 봉사프로그램은 한 달에 격주로 2회 봉사활동이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2020년도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주도 있었습니다. 특히 7월 농촌 일손 돕기 봉사의 경우 포도농장에서 포도순 제거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힘이 들지 않을까 하였는데 우비를 쓰고 하니 날씨가 걱정과 다르게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는 작업이라 햇빛이 쨍하였으면 눈이 부셔서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놀았을 때 빼고, 마음 놓고 비를 맞으면서 있었던 것이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심리적으로 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계속 컴퓨터, 핸드폰만 보다가 초록색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니 잡생각도 안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에는 강화도 주변 해안가에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였는데 그냥 해변 앞 모래사장 주위에서 주워도 쓰레기봉지 20리터짜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고, 환경에 더 신경 쓰고,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3.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았던 점, 프로그램의 우수한 점 등 프로그램의 장점 소개

안다미로 봉사단에 입단하여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좀 더 편한 경로를 통하여 봉사활동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알아보면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학교 내에서 같은 또래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니 새로운 학과 친구들도 사귀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사교성도 키울 수 있으니 대외활동으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잘 몰랐지만 봉사활동의 좋은 점은 다 하고 마쳤을 때 그 보람과 성취감이 주는 행복이 참 크다고 느낀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해 경험을 해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3학년 때부터서야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학교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참여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해를 지나고 4학년이 돼서야 봉사단을 지원하게 되어서 고민하며 머뭇거렸던 제 자신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이번 학기가 더 보람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어떤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지?

사실 학교 다니면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지는 제 주변에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스펙을 쌓기 위해 봉사활동에 관심이 생겼거나, 공동체 활동이나, 대외활동 관련해서 좀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다면 학교 봉사단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다 끝나고 마무리하면 같이 함께한 봉사단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며 맛있는 것도 먹고 친목도모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과 프로그램과 다르게 다양한 학과 친구들과, 여러 연령대 친구들과, 어울리며 봉사를 통한 좋은 활동을 해보는 것에 관심이 간다면 봉사단에 들어가 봉사를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함으로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보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풍족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5.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제안사항

이번에 코로나 19로 수업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처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보다는 여러 안전수칙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기숙사 방역 봉사 등이 이루어져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주변 환경 정화 활동 관련하여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봉사활동에 있어서 사회봉사센터 담당자분들께서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굶은 날씨에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상황 체크와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해주셨고, 덕분에 봉사활동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경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6. 이 프로그램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대학 생활 중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이 더 생겼습니다. 이런 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또 대학생 생활 중 느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학생들이 농촌체험활동 같은 것을 신청해서 가는지도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이지만 관심 있는 분야라면 주저하지 않고, 일단 지원하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번 7월 농촌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되면서 깨달았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봉사활동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앞으로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모두와 함께 이룬 그 성취감과 보람은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나아져서 봉사를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남은 마지막 학기를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